

『傷寒論』 太陽病 12條 에 근거하여 桂枝湯 투여 후 호전된 産後風 1례

정연일¹ 윤효중^{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 120 고려한의원¹
 전라남도 영광군 보건소²

A Case Report of Postpartum Disease Treated with Gyeji-tang Based on No.12 *Shanghanlun* Provision

Yeon-Il Jeong¹ Hyo-Joong Yun²

Goryeo korean medicine clinic, 120 Anam-ro, Dongdaemun-gu Seoul, Korea¹
 Health center of Yeonggwang, Jeollanamdo Province, Republic of Korea²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port the improvement of a patient who had a postpartum disease treated with herb medication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Methods : According to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TaeYang-byung, number 12 provision, and was administered herb medication for 4 months. Visual Analogue Scale(VAS) was used to estimate the patient's status.

Results : The VAS changed 10 to 0.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ld pain and weakness in the legs have improved.

Conclusions : The patient had an experience of miscarriage 3 times and finally got a baby but with postpartum disease. She treated with the herb medication for 4 months and the outcome was found effective and economical due to the diagnostic system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Key words : Gyeji-tang, Postpartum disease,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Corresponding author : Hyo-Joong Yun. Health center of Yeonggwang, 17, Sinnam-ro 4-gil, Yeonggwang-eup, Yeonggwang-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E-mail : nightnday393@naver.com

· Received : 2018/12/15 · Revised · 2018/12/26 · Accepted : 2018/12/29

서 론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 産後관리에 대한 韓醫藥의 역할은 타 문화권에 비해 강조되고 있으며 産後風은 대표적인 관리 대상이다¹⁾. 産後風이란 산후시기에 분만으로 인한 관절통증이나 저림, 시림 등을 호소하며 전신의 힘이 빠지거나 수족 냉증처럼 몸에 찬 기운을 호소하는 제반 증상에 대한 俗稱이었기 때문에²⁾ 諸家の 견해에 따라,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産後調攝이 문제가 되어 나타난다는 견해는 일치한다³⁻⁴⁾.

실제로 産後風은 한의약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산모가 많은 만큼 치료 및 관리도 잘되는 편이다⁵⁻⁸⁾. 하지만 그 증상과 원인이 다양해 치료방법이 다양하므로 産後風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桂枝湯은 <傷寒論>처방 중 太陽病의 대표적인 처방으로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桂枝湯에 대한 연구로는 桂枝湯의 發汗역할⁹⁻¹⁰⁾, 方劑學的 服藥法¹¹⁾, 氣味¹²⁾, 현대적 용량¹³⁾과 약리학적 관점¹⁴⁻¹⁵⁾에서 분석한 연구 이외에도 문헌적으로 15번 조문의 氣上衝에 대한 연구¹⁶⁾와 桂枝湯의 고찰을 통한 少陰人의 病證病理연구¹⁷⁾가 있다. 또한 桂枝湯의 만성 기침 및 알레르기비염에 대한 효과를 보고한 실험연구¹⁸⁾와 임상연구¹⁹⁻²⁰⁾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産後風에 桂枝湯 元方이 실제 투여된 증례는 보고

된 바 없다.

본 증례는 産後風 환자에게 상한론 12번 조문에 근거하여 桂枝湯을 투여 후 주소증을 포함한 신체제반 증상의 호전 반응을 이끌어내었으며 산후의 상황 뿐 아니라 임신 이전에도 갖고 있던 素因까지 고려하여 진단했던 것이 주효했다. 이에 진단 및 치료의 과정을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본 증례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서’,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등의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1. 환자명 : 박 ○ ○

2. 환자 기본정보

여 / 41세 / 168 cm / 53kg / 주부

3. 주소증(C/C) : 출산 후 육아로 어깨, 팔의 통증과 거상 시 무거움, 팔, 다리, 손가락, 시림, 저림, 통증, 하루 종일기운 없어함. 밤에는 팔, 다리 힘이 빠짐.

4. 발병일(O/S) : 2017년 12월 초 출산 후

5. 현병력(P/I)

① 뒷목, 어깨의 무거움. 손가락 식지의 麻木感, 하지의 힘빠짐 등이 1달 지속되고 양방 검사상 별무 소견이나 환자는 증상 지속적으로 호소.

② 간혹 두통 발생.

③ 지속적으로 침치료도 받았으나 별무 호전.

6. 가족력 : 별무

7. 과거력 :

① 만성 비염

②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외상 후 간혹 장기간 보행 시 통증호소.

③ 유산 3회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허기를 참지 못하지만, 출산 후 살을 빼려고 소식하려고 노력 중.

2) 消化 : 대체로 양호.

3) 口部 : 갈증은 없고, 음수량 1리터 미만, 피로 시 입안이 험다.

4) 汗出 : 출산 전보다 출산 후에 식은땀이 자주 남

5) 大便 : 매일 1회 보나 간혹 변비도 있는 편.

6) 小便 : 7~8회/일, 양호

7) 寒熱 : 추위, 더위 모두 타며, 수면 시 발바닥에 열이 남.

8) 頭面 : 알러지 비염, 피부 알러지

반응, 간혹 두통 및 치통 발생.

9) 呼吸 : 별무 증상

10) 胸部 : 별무 증상.

11) 腹部 : 아랫배 압통과 배근함.

12) 睡眠 : 양호

13) 身體 : 뒷목, 어깨 무거움.

14) 婦人 : 생리 시 요통, 생리주기 일정하며 냉은 없는 편. 1-0-3-1(산과력:만삭분만-조산-유산-현재 자녀수)

15) 感情 : 출산 후 사소한 일에도 가족들에게 화를 잘 내는 게 생겼다. 본인의 말로는 히스테리 같다고 함.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1) 臨床 所見

① 이 환자는 출산 후 과도한 육아와 가사일로 하루 종일 팔을 많이 사용하여 어깨, 팔, 뒷목 통증과 무거움이 관찰된다.

② 팔 통증, 상하지 저림과 밤에는 다리 힘이 빠지는 증상도 관찰된다.

(2) 辨病 診斷 : ㉠大陽病

주소증 발생시기인 출산, 육아 과정에서 팔, 다리, 몸을 매우 많이 사용함. 본 환자는 언제나 몸을 많이 사용 시에 뒷목, 어깨가 아프고, 찬 기운에 약해지면서 병이 발생 함. 그러므로 大陽病으로 진단

(3) 條文 診斷 : 12. 大陽中風, 脉陽

浮而陰弱，嗇嗇惡寒，淅淅惡風，翁翁發熱，鼻鳴乾嘔者，桂枝湯主之。

상기 환자는 發熱, 汗出, 惡風, 脉緩을 호소하여 강평상한본 2번 조문에 의해 中風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특별히 출산 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는 임신이전에도 자주 노출되던 만성비염, 피부 allergic 반응과 같은 면역계 질환과 유관하다 관

단하여 12번 조문으로 진단하였으며 진단의 요점들은 Table 1. 과 같이 정리하였다.

2) 치료 평가 도구

환자의 치료전후 몸 상태에 대한 주관적 진술과 통증의 정도를 VAS(Visual analogue scale)점수로 평가하였다.

Table 1. The Main Diagnostic Points

| Term / Interpretation* | Expression in Shanghanlun | Related Patient Information |
|------------------------------|---------------------------|---|
| Greater yang disease pattern | 大陽病 | Inadequate postpartum care such as too much parenting works and household chores caused the patient's illness |
| Weakness | 弱 | The patient feel her legs weak |
| Aversion to wind | 惡風 | Tingling pain |
| Aversion to cold with fever | 惡寒, 發熱 | -Allergic rhinitis -Easy to get a cold |

Table 2.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Gyeji-tang

| Herbal name | Daily dose(g) |
|-------------------------------|---------------|
| Cinnamomi Ramulus | 9 |
| Paeoniae Radix | 9 |
|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 6 |
| Zingiberis Rhizoma | 9 |
| Zizyphi Fructus | 9 |

11. 치료적 증재

1) 한약 투여

桂枝湯을 1일 3회, 1회 120cc 씩 120일간 복용 하도록 하였다. 탕전법은 Table 2. 와 같다.

2) 생활지도

과도한 집안일이나 육아는 가족분에 맡기고 줄이라고 했으며 낮 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권함.

*The words above are following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such as 'greater yang disease pattern', 'weakness', 'aversion to wind', 'aversion to cold with fever'

12.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 120일

2) 경과

상기환자는 桂枝湯을 복용한 한 달 만에 급격한 호전변화를 보였고 마지막 복용이 후 출산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추이를 도식화하였으며(Figure 1) 진료시기별 연대표를 작성하였다(Figure 2).

(1) 초진일 : 2018년 2월 4일

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 기운 없음, 아침 기상 시 무척 힘이 들고 기상시간이 오래 걸림.

② 팔다리 무거움,

③ 특히 저녁에 하체에 힘이 많이 빠짐.

④ 밤낮 팔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통증호소. VAS 10점

(2) 1달 후 재진 (桂枝湯 복용 30일)

① VAS 5점.

② 이전보다 기상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함.

③ 아기 들거나 가사일 할 때 절반은 덜해져서 좋았다고 함.

(3) 2달 후 재진 (桂枝湯 복용 60일)

① VAS 3점.

② 아침 기상 시 덜 피곤하고, 빨리 일어날 수 있음.

③ 다리에 힘이 들어감.

④ 뒷목이 뻣뻣하고 경직됨이 많이 줄었다고 함.

(4) 3달 후 재진 (桂枝湯 복용 90일)

① VAS 1점

② 저번보다 전반적으로 더 호전되어 팔 시리고 저림, 통증이 거의 소실되어 관절이 사용하기가 매우 부드러워졌으며 특히 밤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소실되어 밤에도 걷기가 수월해짐.

③ 뒷목, 어깨의 무거움, 손가락 식지의 麻木感이 거의 소실되고, 비염 증상도 매우 완화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코풀기 안 해도 될 정도임.

(5) 4달 후 재진 (桂枝湯 복용 120일)

① VAS 0점

② 전반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매우 많이 호전되고 체력이 임신전과 같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함.

③ 기운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성질이었는데 화내는 정도가 많이 줄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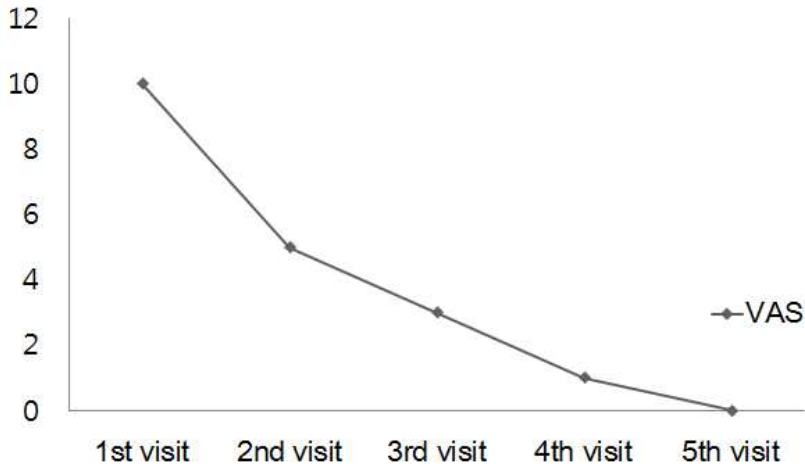


Figure 1. Changes of VAS. VAS(Visual analogue scale) were measured in every vis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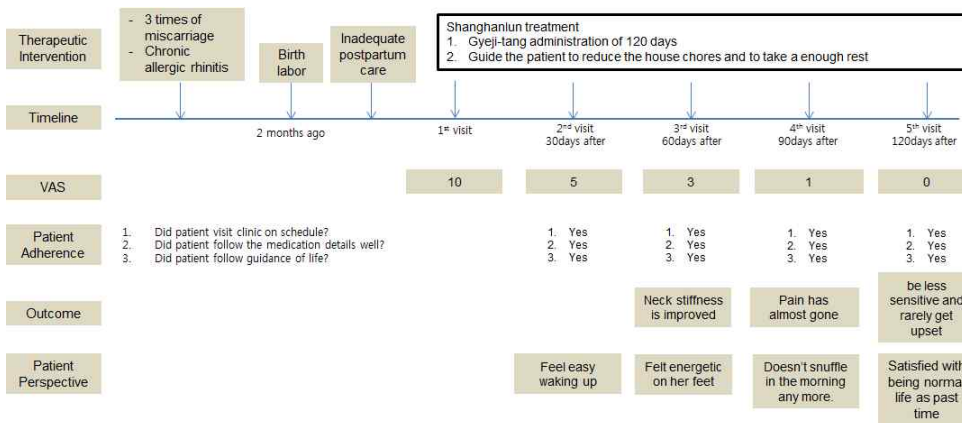


Figure 2.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This figure's categories such as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Illness status(VAS), Patient adherence, Outcome,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고 찰

여성들의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과 수행도는 미국인이나 재미교포에 비해 국내의 산모에게서 더 높으며 국내의 산모들의 경

우 산후조리의 방법으로 한방치료를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¹⁾. 따라서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에서 산후관리에 대한 한의약의 비중은 크다 할 수 있으며 産後風은 대표적인 한의학적 관리대상이다.

한의학적으로 産後風은 산후병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산후병의 특징은 多虛와 多瘀이다. 분만 중에 힘을 너무 많이 쓰고 產道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산모의 元氣가 손상되고 氣血이 부족하여 百脈이 空虛하게 되어 산후에는 虛證이 많다²¹⁾ 이 때문에 환자들이 산후보약이란 개념에 친숙하며 한방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의 환자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원하였다. 한편 裴²²⁾는 產後風을 민간에 내려오는 속칭어로 소개하고 여자가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얻은 병을 통칭하였는데, 그 증상군을 갱년기에 나타나는 자율신경장애증후군과 비슷하게 보고 있으며 이와 궤를 같이하는 연구도 존재한다²³⁻²⁴⁾. 본 증례 역시 환자에게서 얼굴로 열이 오르는 등의 유사증상이 관찰된 바 있다.

產後風을 치료한 임상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⁵⁻⁸⁾ 桂枝湯 원방을 직접 투여한 증례 보고는 없는 실정이며 桂枝湯에 대한 실험 연구로는 박 등¹⁸⁾이 桂枝湯 가미방의 알려지성 비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있고 임상연구로는 김 등¹⁹⁾은 알려지성 비염에, 김²⁰⁾은 만성기침에 각각 桂枝湯加味方과 桂枝湯을 투여하여 득효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桂枝湯에 대한 문헌적 연구와 그 기전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나⁹⁻¹⁷⁾ 桂枝湯의 역할이 調和營衛하여 外感을治한다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產後風의 한의학적 原因은 크게 氣虛血滯, 血虛, 外感風寒으로 要約할 수 있으며 결과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桂枝湯 투여 후 환자가 호전되었으므로 본 증례 또한 外感風寒의 진단명과 연관하다 할 수 있다.

환자는 辨病診斷體系²⁵⁻²⁶⁾를 통해 大陽病으로 진단되었으며 의사는 康平本 12번 조문에 근거하여 투약하였다. 또한 투약 후 30일 이내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환자는 3회의 유산병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뒷목 결림, 통증을 호소하며 비염, 알러지성 피부염 등 찬 기운에 취약하며 老産 후 낮 시간에 과도하게 팔을 많이 사용하여 생긴 병이므로 康平本 1번 조문의 脉浮, 頭項強痛, 惡寒을 제강으로 삼는 大陽病의 범주에 속한다. 상기 환자는 發熱, 汗出, 惡風, 脉緩을 호소하여 康平本 2번 조문에 의해 中風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특별히 출산 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다. 변병진단체계를 활용하여 弱²⁷⁾과 陰陽²⁸⁾의 용어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밤에 다리 힘이 빠지는 현상을 ‘陰弱’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 평소의 손 저림, 상하지 저림이 있으며 만성비염, 피부 알러지 반응이 잦은 것은 產後風으로 발병하기까지의 素因으로써 ‘發熱惡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病因과 처방선정의 해석에 있어 產後風과 桂枝湯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및 연구결과와 大同小異하나 이전 연구들의 치료수단이었던 大方들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철저히 <傷寒論> 조문과 그 처방에 근거하며 환자의 과거 병태를 거시적으로 진단하는 변병진단체계만의 가치가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증례는 1례로서 통계적인 한계점이 존재하나 產後風에 대한 한방치료의 경제성 및 추후 연구에 사용될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결 론

3회의 유산병력이 있고 노산 후 産後風이 발병한 환자에게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 입각하여 太陽病으로 진단하고 12번 조문의 桂枝湯을 4개월간 투여하여 VAS 10점에서 0점으로 호전되어 치료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

1. GM Bae, IS Lee. The Study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n Postpartum Symptom among Korean, Korean resident in America and American.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2010;23(2):131-44
2. BK Song.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Hang-lim publishing company. 1986:98-108, 473.
3. DY You. Clinical studies on the General Pain after Childbirth.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Daejeon University. 1997;5(2):513-22
4. BH Min, DY Yoo. Study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for 産後風(chan hou feng).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Daejeon University. 2004;13(1): 159-68
5. HS Cho, IS Lee, SH Lee. Case Report of Postpartum Disease with Postpartum Sweating.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1;25(3):558-62.
6. SR Jang, DC Kim. A Case Report of Postpartum Disease with Hyperhidrosis and Finger Pain.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2015;28(3):128-35
7. YH Song, DY Yoo. A Case report of the General Pain after Childbirth with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Daejeon University. 2011;20(1):111-7
8. SR Jang, YS Park, DC Kim. The Clinical Analysis of 104 Sanhupung Patients that visited at an OrientalMedicine Hospital.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2010;23(3):192-204.
9. K Kim, WJ Meang. A study on post-formula instruction of Kyejitang(桂枝湯).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0;23(1):25-41.
10. K Kim. A Study on Cold Damage(傷寒) and Inducing Sweating(發汗).- with the Priority Given to Cinnamon Twig Decoction(桂枝湯) and Ephedra Decoction(麻黃湯). WonKwang Univ. Doctoral Dissertation. 2010.
11. GY Chi. Studies on Principles of Taking Concoction and Contraindication against 5 Pungent Vegetables from Guizhi-tang in Shanghanlun.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1;25(4):589-95
12. IR Kim. In order to standarization of Kye-Ji Tang of Treatise on Febrile Diseases. Journal of Hyungok Academic Society. 1997;2(2):297 -314
13. IR Kim, JH Park. Study on one Ryang of Guizhi-tang.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2;16(4):637-41
14. TS Park. A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Prescription of Shanghanlun Cinnamon Decoction. SunMoon Univ. master's thesis. 2013.
15. SC Kim. Analysis of Cinnamon Twig

- Decoction with the Combination of Drugs. The Journal of Jehan Oriental Medical Academy. 1998;3(1):137-45
16. SJ Lee, YM Kim. A study of 'Ji-Qi-Shang-Chong(其氣上衝)' and Gui-Zhi-Tang(桂枝湯) in Shang-han-lun. Herbal Formula Science. 2012;20(2):165-76.
 17. JH Kim, JM Kim. A Study about modification of Gejitang that showed on symptom and prescription about Soumin.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9;11(1):201-20.
 18. M Park, SY Sim, HS Byun, KJ Kim. The Study on the Anti-Allergic Rhinitis Effects of Gamigyejitang (focus on histological change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5;18(1):234-40.
 19. KJ Kim, BY Chae. A case report of Gyeji-tang gamibang on Allergic rhinitis.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1997;10(1): 332-39.
 20. SJ Kim. Three cases of chronic cough treated with Gui-Zhi-Tang(桂枝湯) in Shanghanlun 12th, and 15th text.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3;5(1):31-43.
 21.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Vol.2. 2001:336.
 22. WS Bae. The latest Korean Medicine Clinics. NamSanDang publishing house. 1999:753-6.
 23. YJ Lee, DS Hwang, CH Lee, KS Lee. A Study on Characters of Heart Rate Variability in Postpartum Disease Patients.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07;20(3):178-84
 24. KS Park, YJ Lee, DS Hwang, JM Lee, JH Cho, JB Jang, et al. A Study on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Characters of Women Suffering from Postpartum Disease.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13;23(2):116-23
 25. DD Kim. A Case Report of Panic disorder treated by Jukyeopseokgo 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6;8(1):155-64
 26. SJ Lee, JE Lim. A case report form based on Shanghanlun six clinical patterns and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3;5(1):1-17
 27. J Heo. A Case Report of Dizziness treated by Guizhiyuebiyi-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7;9(1):21-8
 28. SH Jo, SJ Lee. 4 Case Reports of Eumyang-yeokchahunobok-byung treated by Herbal medicine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6;8(1):121-43